

## 돼지단독균 원인의 감염성 심내막염 증례 (또는 1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민영, 안효진, 전윤희, 김상일

**서론:** 돼지단독균(*Erysipelothrix rhusiopathiae*)은 돼지에게 단독과 패혈증을 일으키는 균이면서 간헐적으로 사람에게도 감염이 일어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혐기성 그람양성간균으로 보균돈의 분변과 오줌, 침을 통해 감염되고 수질 오염 혹은 쥐를 통해 직간접적인 전파가 가능하다. 피부의 상처 혹은 위장관벽을 통해 혈류로 유입되며, 급성인 경우 패혈증, 피부형, 만성인 경우에는 관절형, 심내막염형이 있다.

**증례:** 공복혈당장애, 고혈압 있으며 B형간염 보균자인 57세 남자환자가 한 달째 지속되는 왼쪽 옆구리 통증, 발열, 오한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촬영한 복부 CT에서 비장경색 발견되었다(그림1). 상기 환자는 혈관 조형술과 흉부 초음파를 1달 전 시행 받고, 경도의 승모판/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을 진단 받은 상태였다. 이번 내원 시에는 동반된 발열로 ceftriaxone을 경험적으로 시작하였고, 혈액배양 중간 결과 small positive rod 로 vancomycin을 추가하였다. 이후 경식도 초음파 시행 시 승모판 posterior leaflet에 14 mm, anterior leaflet 에 5 mm 크기의 우종(vegetation)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돼지단독균 동정되어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하였다(그림2). ESC guideline(2015) 상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여 승모판/대동맥판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고찰:** 돼지 단독균은 분변을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 감염증으로서 배양/조직검사가 진단의 표준방법이며 노출력 확인이 중요하다. 본 환자의 경우 추후 알게 되었으나 돼지고기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종사자였다. 돼지 단독균은 다른 그람양성간균과는 다르게 penicillin, cephalosporin, clindamycin 등에 감수성이 있고 대부분 vancomycin에 저항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발열과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발견된 복강 내 경색과, 흔히 않은 돼지단독균에 의한 심내막염으로, 반복적인 배양 및 심초음파가 필요함을 시사한 증례이다. 또한 드물게 vancomycin이 듣지 않는 그람 양성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재각성하게 해준 드문 임상증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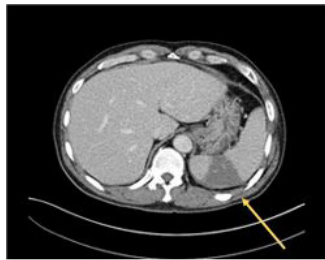


그림 1 - 복부 CT



그림 2 Oscillating echogenic masses at MV, -maximal diameter: PML-14mm